

# 음식 규례와 거룩

-레위기 음식법의 신학과 해석-

김덕중\*

##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유대인들은 까다로운 음식법 규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대인들은 카슈루트(kashrut)이라는 음식법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생활한다.<sup>1)</sup> 전통적으로 음식법(dietary law/dietary regulations)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유대교를 이해하는 데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음식법은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의 음식법 규정은 고대 유대교,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구약성경에 기원을 두고 있다. 유대인들의 음식법 규정(카슈루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구약성서의 음식법은 오경

---

\*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카슈루트는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식탁에 관련한 규정을 모아 놓은 것이다. 유대인은 카슈루트에 따라 먹기에 합당한 음식(코셔)과 합당하지 않은 음식(트라이프)를 결정한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표적인 음식법 규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돼지고기 등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분류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2) 피를 합당하게 제거하지 않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3) 합당한 도살 방식(셰히타)에 의하지 않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4) 음식을 만들 때, 고기와 치즈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현대 유대인들의 음식법 규정은 Dan Cohn-Sherbok, *The Jewish Faith* (London: SPCK, 1993), 212-216; 최명덕, 『유대인 이야기』 (서울: 두란노, 1998), 11-22를 참고하라.

안에 두 법전(제사법 전례 11장/ 신명기 법전(신 14장)에 각각 소개되고 있고, 각각 중요한 위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 중 레위기 11:1-23은 음식법 연구의 표준 본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필자는 레위기 텍스트가 제시하고 있는 음식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 규정 속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음식법의 해석학적인 문제들을 고대 이스라엘과 유대교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먼저 (1) 레위기 음식법에 관한 본문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고, (2) 레위기 본문이 전달하는 신학적인 메시지와 해석학적인 문제들, (3) 고대 유대교 바리새파 전통에서의 음식법 규정의 해석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 2. 레위기 11장의 구조

레위기 11:1-23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레위기 11장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sup>3)</sup> 레위기 11장 전체의 문학적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 도입 형식: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1
II. 아웨의 말씀 보도	2-47
A. 서론: 말씀 전달 양식	2a

2) E. P. Sanders, *Jewish Law from Jesus to the Mishnah* (London: SCM Press, 1990), 27; Walter Houston, *Purity and Monotheism*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3. 음식법에 관한 이슈는 바리새파 전통에서 특히 강조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바리새파의 음식법 규정에서 발전된 것으로 알려진 카슈루트(Kashrut) 제도는 오늘날 유대교의 중요한 전통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3) 자세한 분석은 Tai-Il Wang, “Leviticus 11-15: A Form-Critical Study,” Ph. D., diss. (Claremont Graduate School, 1991), 39-84; Walter Houston, *Purity and Monotheism*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29-32; John Hartley, *Leviticus*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2), 151-157을 참조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B. 말씀의 내용	2b-47
1.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	2b-23
a. 땅의 짐승	2b-8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2b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不淨)하니라”	8b
b. 물고기	9-12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9a
“너희에게 가증(可憎)하니라”	12b
c. 공중의 새와 곤충	13-23
“가증(可憎)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13
1) 공중의 새	13-19
2) 날개달린 곤충	20-23
“너희에게 가증(可憎)하되”	20b
“너희에게 가증(可憎)하니라”	23b
2. 동물의 죽음으로 발생한 부정과 그 처리	24-44
a. 땅의 짐승	24-28
b. 기어 다니는 땅의 생물	29-38
c. 자연사(自然死)한 정한 짐승	39-40
3. 결론적인 권고	41-47
a. 요약: 기어 다니는 땅의 생물로 인한 부정	41-45
1) 먹는 것	41-42
2) 접촉하는 것	43
b. 신학적 동기(motive clause)	44-45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c. 맺음말	46-47
“이는…규례(토라)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분별할 것이니라”	

레위기 11장(레 11:1-47)은 레위기 정, 부정 단락(레 11-15장)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도입 형식(“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도입 형식에 이어 야웨의 말씀 보도가 따라 나온다(2b-47절). 말씀 보도의 도입 부분에는 말씀을 듣게 될 대상(이스라엘 백성)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11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상은 일차적으로 대제사장 아론, 이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야웨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1) 하나는 먹는 것의 문제, 즉 정하고 부정한 짐승의 구분(2b-23절)이고, (2) 또 다른 하나는 시체와 접촉했을 때의 부정의 처리 문제이다(24-40절). 각각의 단락은 세 개의 소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락(2b-23절)에서는 육지에 사는 정하고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분(2b-8절), 물에 거주하는 정하고 부정한 것들(9-12절), 공중에서 활동하는 날개 달린 짐승들 중에서 정하고 부정한 종류(13-23절)를 나열하고 있다. 각각의 경우들을 소개하는 소 단락들은 각각 일정한 패턴으로 제시된다. 육지에 사는 동물의 경우 도입구와 종결어구에 따라 단락의 시작과 끝을 이룬다(“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가증(혹은 부정)하니라”). 이 패턴은 물속의 생물을 소개하는 단락에도 똑같이 사용된다. 그러나 공중의 새의 경우(13-19절)에는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진다. 공중의 새의 경우는 앞의 두 경우와는 다른 도입구로 시작한다(13절,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은 공중의 새의 경우 정한 동물의 기준 없이 먹을 수 없는 종류만 나열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 다음으로 날개 달린 곤충의 정, 부정의 경우를 소개하는 단락(20-23절)이 따라 나온다. 그렇지만 이 단락을 공중의 날개 달린 생물을 다루는 내용의 부록으로 본다면,<sup>4)</sup> 세 번째

4) 학자에 따라서는 11:20-23을 별도의 단락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웬햄(Wenham, *The Book of Leviticus*, 153)은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을 포괄하는 의미로 레위기 텍스트는 육지의 생물, 물속의 고기, 하늘의 새들, 땅의 곤충들의 4종 자료를 제시한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1:20-23은 11:13-19 단락에 종속된 세부 단위로 본다. (1) 앞에 소개된 육지의 동물과 물속의

단락의 종결어구는 앞의 두 경우와 동일한 패턴을 따른다(“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그렇게 볼 때, 레위기 본문은 정하고 부정한 생물을 육지, 바다와 강, 하늘의 세 가지 영역에 맞추어 체계화된 목록(systematized list)을 제시하고 있다.<sup>5)</sup>

두 번째 말씀 보도 단락(24-40절)은 시체와 접촉할 경우, 부정하게 되는 것과 부정을 깨끗케 하는 규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단락도 첫 번째와 유사하게 육지의 부정한 동물의 경우(24-28절), 땅에 기는 종류(29-38절), 정한 짐승의 경우(39-40절)를 다루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의 경우(39-40절)는 정한 짐승의 시체와 접촉하여 생기는 부정의 문제와 스스로 죽은 정한 짐승을 먹어 생기는 부정의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39-40절은 두 번째 단락의 첨가 부분(appendix)처럼 보인다.<sup>6)</sup> 이렇듯 레위기는 음식법 규정과 동물의 시체와 접촉하여 생기는 부정의 문제를 함께 연결시켜 음식법 규정을 의식적인 정, 부정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sup>7)</sup>

---

고기의 경우에 각각 종결어구[“이는 너희에게 부정(가증)하니라”]가 나오는 반면, 공중의 새의 경우에는 종결어구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11:20-23 단락은 육지의 동물과 물속의 고기의 경우처럼 “너희에게 가증하다”는 구절로 끝나고 있어, 13-23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2) 3단계 구분법(tripartite division)은 제사장적 자료(P)와 레위기 구성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3) 레위기 11장의 평행 본문인 신명기 14장도 곤충류를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날개 달린 짐승의 일부로 다루고 있다.

5) 먹을 수 없는 생물의 경우를 육지와 물과 하늘, 세 개의 영역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은 창세기 1-2장의 창조 기사의 기술 방식과 유사성을 보인다. Douglas는 두 자료의 상호 연관성을 지적한다[“The Forbidden Animals in Leviticus,” *JSOT* 59 (1993), 16].

6) Houston, *Purity and Monotheism*, 27.

7) Mary Douglas, “The Forbidden Animals in Leviticus,” 5. 그렇지만 신명기 텍스트는 레위기 11:24-40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이것은 신명기 텍스트(신 14장)가 음식법 규정을 레위기 텍스트처럼 의식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신명기 14장의 음식법 규례의 신학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필자의 논문 “구약성서의 음식법 연구: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중심으로,” 『국제신학』 7 (2005), 324-349를 참고하라.

두 가지의 중심 주제에 이어서 결론적인 권고가 따라 나온다. 41-45 절에서는 먹는 문제에 관한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서, 앞에서 다룬 말씀(2b-23절)을 요약하고 강조하는 성격을 지닌다.<sup>8)</sup> 41-45절은 명령(instruction)의 형식(41-43절)에서 권고와 설교(exhortation and sermon)의 형식(44-45절)으로 전환되면서 11장 전체의 결론을 이룬다.<sup>9)</sup> 특별히 44-45절은 레위기 음식법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레위기 음식법과 정, 부정법의 신학적인 동기가 제시되어 있다. 4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음식법 규례, 그것과 관련된 정, 부정의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11장 전체는 맺음말(46-47절)로 끝을 맺는다. 46-47절은 앞에서 다룬 4가지 주제인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이 먹지 못할 생물을 언급하면서 야웨의 말씀 보도 단락 전체를 마무리 한다.<sup>10)</sup> 따라서 11장 전체는 음식법 규정과 짐승의 시체와의 접촉에 따른 부정의 문제를 야웨 말씀 보도 형식으로 제사장적(의식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통일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 
- 8) 11장 전체 내용의 요약적인 성격을 지닌 41-45절 전체는 기어 다니는 생물(꺾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면에서 통일성을 보인다. 기어 다니는 생물이나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은 활동하는 영역(육지, 물 속, 공중)에 상관없이 부정하다고 선언한다. 기어 다니는 것과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 모든 부정한 생물의 대표로 제시되는 듯한 인상이다.
  - 9) 11장 전체에서 유일하게 44-45절에서만 1인칭 신명(divine first person)이 사용된다. 이러한 형식 전환(style shift)의 의도는 청중들에게 앞에서 다룬 내용을 상기시키며, 주지시키기 위함(훈육의 목적)이다. Hartley, *Leviticus*, 156.
  - 10)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언급하는 46-47절의 진술은 11장의 내용과 교차대칭을 이루며 11장을 하나의 통일된 단락으로 묶는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구별이 11장의 두 번째 단락의 관심사인 반면, 먹을 수 있는 생물이 먹을 수 없는 생물의 구별은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다.

47절: 부정한 것-정한 것(47a)      먹을 수 있는 생물이 먹을 수 없는 생물들(47b)  
 2-44절: 정, 부정 음식(2-23절)      시체와 접촉으로 인한 부정(24-44절)

### 3. 레위기 음식법 규정의 신학과 해석

레위기 텍스트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 ① 육지에 걸어 다니는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11:3-8).
- ② 물속에 사는 물고기로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종류 (11:9-12).
- ③ 공중에 날아다니는 짐승 중에서는 20여 가지의 맹금류 외의 조류 (11:13-19).<sup>11)</sup>
- ④ 기어 다니는 곤충 중에서는 뛰는 두 다리를 가진 메뚜기 종류 (11:20-23).

레위기 11장에서 정하고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근거와 그 배후에 있는 신학적인 사상은 무엇인가?

#### 3.1. 해석상의 제안들

정하고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근거와 신학적 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레위기의 음식법에 관련된 해석상의 제안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2)</sup>

---

11) 11:13-19에 등장하는 새들이 어떤 종류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이 목록에 등장하는 새들이 맹금류(야생조류와 육식을 하는 새)의 새들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 3.1.1. 위생학적인 해석

위생학적인 해석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해석으로, 이 해석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은 병균을 옮기는 짐승들이다. 따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바로 부정한 짐승이요 위생상으로 문제가 없는 짐승은 정한 짐승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해석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선모충을 옮기는 고기이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대개 얇은 물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시체를 먹는 새처럼 위험한 박테리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sup>13)</sup>

### 3.1.2. 제의적인 해석

이 해석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은 이방의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웨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방 제의와 관련한 동물들을 피해야만 한다.<sup>14)</sup>

---

12) 지금까지 음식법과 관련하여 제기된 상세한 해석상의 이론과 학자들의 의견에 관해서 Houston, *Purity and Monotheism*, 68-123을 참고하라.

13) 이 해석은 현대인들에게 호감을 주는 해석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정한 짐승들 중에서도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라면 삶아서 먹으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3) 구약 성서에는 그런 음식들이 건강에 해롭다는 언급이 나와 있지 않다. 4) 건강상의 이유라면 왜 해로운 식물은 언급이 없는가? 4) 부정한 짐승이 건강에 해가 된다면 왜 예수께서 그것을 정하다고 선언하셨는가? 이 해석은 이런 물음에 만족할 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14) 실제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돼지 뼈가 제의 장소(cultic site)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본다. 아마도 고대 근동에서는 돼지를 신성한 동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레로 이사야 65:4-5의 말씀은 돼지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동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왜 애굽과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황소는 부정한 짐승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문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 3.1.3. 상징적 해석(알레고리적 해석)

이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물고기 지느러미가 위로 솟아 오른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돼지는 더러운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부정함 짐승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 3.1.4. 윤리적 해석

이 해석에 의하면, 성경에서 피를 금지하는 것과 더불어 레위기의 음식법의 배후에는 생명 경외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sup>15)</sup>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생물을 제한하는 것에는 생명체를 함부로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sup>16)</sup>

위의 해석들이 모두 부분적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의 견해들은 음식법의 일관된 사상과 음식법 규정의 배후에 있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해석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상상력이나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15) Jacob Milgrom, "The Biblical Dietary Laws as an Ethical System," *Interpretation* 17 (1963), 288-301. 이 해석에 의하면, 태초에 인간은 채식을 하였고,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창 9장)에 허락되었다. 그렇지만, 육식을 할 경우에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가 수반되므로 신중함이 요구되었다고 본다.

16) 만약 생명 존중의 사상이 음식법을 지키는 이유라면, 수많은 살아 있는 짐승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한 제사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레위기의 음식법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레위기 본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3.2.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의 견해

레위기 11장의 해석과 관련하여, 메리 더글라스의 대안적인 해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레위기의 음식법과 관련하여 더글라스가 제시하는 해석학적인 원칙은 레위기의 거룩과 정함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더글라스는 거룩과 정함의 기본 개념을 각각 온전함과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한다.<sup>17)</sup> 더글라스에 의하면, 정한 짐승은 정상적인 짐승이요 부정한 짐승은 비정상적인 짐승을 의미한다. 레위기의 세계관에 의하면, 동물의 활동 영역은 세 가지로 구분되고, 각각의 영역에는 그 영역에 맞는 정상적인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중의 새는 날 수 있는 두 날개와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속의 생물은 수영할 수 있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며, 육지 동물은 뛰어 다닐 수 있는 갈라진 굽이 있어야 한다.<sup>18)</sup>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갖춘 생물은 정상적이다. 정한 것으로 분류하는 동물은 이 양식에 상응하는 종류이고, 이 양식에서 벗어나는 동물은 부정한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날면서 많은 다리가 있는 곤충들은 정상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부정한 생물이다. 그렇지만 메뚜기는 날개와 뛰는 두 다리가 있어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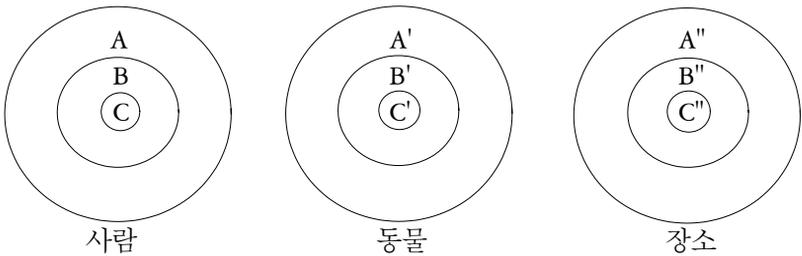
17) Mary Douglas, *Implicit Meaning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5), 265.

18) 이 역시 “양, 염소는 괜찮은데 왜 굽이 있는 돼지고기는 불결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더글라스는 사회 인류학자(social anthropologist)답게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이나 염소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양식으로 인정되어 왔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한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목축업 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발가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 정상적인 짐승들이라는 것이다.

외형상 공중의 새에 해당되는 기준에 합당하여 정한 짐승으로 간주한다.

더 나아가 더글라스는 동물의 정, 부정의 분류의 원칙을 인간 세계에도 적용을 시킨다. 더글라스는 레위기에서 동물의 세계는 인간 세계를 반영한다고 본다. 더글라스는 모든 짐승과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한다. 즉, 동물의 경우는 모든 짐승, 정한 짐승, 희생 제물이고, 사람의 경우는 모든 인간,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짐승과 사람은 거룩의 세 단계인 부정한 영역, 정한 영역, 거룩한 영역에 속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있는 동물들은 사람의 경우(모든 인간,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와 의미상 상응한다고 본다.<sup>19)</sup> 더글라스의 견해를 반영하는 밀그룹은 다음과 같은 도표로 설명한다.<sup>20)</sup>

사람: 모든 인간(A); 이스라엘 사람(B); 제사장(C)  
 동물: 모든 동물(A'); 정결한 동물(B'); 희생 제물(C')  
 장소: 모든 땅(A''); 진(B''); 성막(C'')



이 도식은 사람을 거룩의 정도에 따라 모든 인류(A), 이스라엘 백성

19) Philip Peter Jenson, *Graded Holines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145; Gordon Wenham, "The Theology of Unclean Food," *EQ* 53, 6-15.

20) Jacob Milgrom, "The Changing Concept of Holiness in the Pentateuchal Codes with Emphasis on Leviticus 19," John Sawyer, ed., *Reading Leviticu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70.

(B), 제사장(C)로 분류하고, 동물도 각각 모든 동물(A'), 정한 동물(B'), 희생 제물(C)로 분류한다. 그리고 공간적인 차원에서 거룩의 정도에 따라 온 땅(A"), 진(B"), 성소(C)로 구분한다. 각각의 종류는 레위기의 거룩의 세 단계의 구분인 부정한 영역, 정한 영역, 거룩한 영역에 속해 있다. 그리고 동일한 거룩의 영역에 속해있는 동물과 사람은 의미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부정한 동물은 이방인, 정한 동물은 이스라엘 백성, 제물로 쓰이는 동물은 제사장을 대표한다.<sup>21)</sup> 따라서 레위기의 세계관에 따르면, 정한 동물은 이스라엘, 부정한 동물은 이스라엘 외의 인류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정한 짐승을 먹어야 한다. 이와 같이 더글라스는 음식법 배후에는 정, 부정과 관련된 고대 이스라엘의 가치 체계(system)가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더글라스의 이러한 해석은 레위기의 음식법 규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더글라스의 이론은 상상력이나 추론이 아닌 레위기의 세계관과 신학을 근거로 레위기의 음식법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 방법의 문제점들을 크게 보완하고 있다. 그녀의 공헌은 레위기의 음식법의 배후에 깔려있는 일관성을 지닌 포괄적 해석의 원칙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 3.3. 레위기 전후 문맥에서의 위치

더글라스의 견해는 레위기 전체의 세계관과 신학을 배경으로 레위기의 음식법의 규정의 이유를 찾고자 했으나, 레위기 11장의 문맥 속에서 텍스트의 신학적 의미를 규정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

21) 제사장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기능상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동물의 초 태생은 곧 인간 세계의 장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출 13:2; 22:29-30; 34:19). 희생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요구는 제사장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레 21:17-21, 22:19-25). Jenson, *Graded Holiness*, 145; Wenham, "The Theology of Unclean Food," *EQ*, 6-15를 참조하라.

레위기의 음식법의 신학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레위기 11장 본문과 보다 큰 문맥 안에서 음식법이 차지하는 위치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레위기의 음식법 규정을 해석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1) 레위기 전후 문맥에서 레위기 11장이 차지하는 ‘신학적인 위치’와 (2) 음식법 규정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종결어구(44-45절)의 의미이다.

첫째, 레위기의 음식법은 내용상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거룩과 관계된 제사장의 사명이 주어진다(레 10:10-11). 제사장은 앞으로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제사장이 가르쳐야 할 거룩과 정, 부정의 내용은 11장 이후에 제시된다.<sup>22)</sup>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모세와 더불어 제사장 아론을 일차적인 수신자로 포함시킨다(레 11: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sup>23)</sup> 따라서 레위기의 음식법은 일차적으로 모세와 더불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법으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자료인 셈이다. 이것은 음식법 규정의 맺음말(종결어구)인 46절에서 다시 확인된다(“이것은 규례(토라)이니”). 여기에서 규례(토라)는 제사장적 전문지식을 의미한다.<sup>24)</sup> 11장의 도입 구문에서 아론을 언급하는 것과 더불어 맺음말에 사용된 규례(토라)는 레위기 11장 전체가 제사장적 자료임을 확인한다.<sup>25)</sup> 다시 말하면, 레위

22) Nobuyoshi Kiuch에 의하면(*Leviticus*, 195), 레위기 11-16장은 정, 부정의 주제를, 레위기 17-26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다룬다.

23) 레위기 전체에 걸쳐서 대제사장 아론이 야웨 하나님의 말씀의 일차적인 수신자로 등장하는 데는 10:8과 11:1뿐이다.

24) Houston(*Purity and Monotheism*, 26), Noth(*Leviticus*, 195)와 Bailey(*Leviticus*, 55-56)는 레위기 11-15장의 율법(토라)들은 여러 성소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나 설교의 모음집이라고 한다.

25) Martin Noth, *Leviticus* (London: SCM Press, 1965), 91-92; Nobuyoshi Kiuch, *Leviticus* (Nottingham: Apollos, 2007), 195.

기 11장의 음식법 규정은 제사장들이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거룩의 한 내용인 것이다.<sup>26)</sup> 따라서 레위기의 음식법 규정(레 11장)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정, 부정과 관련한 내용을 레위기의 핵심 주제인 ‘거룩’이라는 문맥 속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규정이 보다 큰 문맥에서 레위기 11-15장의 정, 부정 단락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해석학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레위기 11-15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의 문제들이다. 12장은 출산 후 여인이 겪게 되는 부정함, 13-14장은 인간과 가옥에 발생하는 악성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함, 15장은 남녀의 성기에서 유출되는 분비물로 인한 부정함을 다룬다. 그리고 이 단락의 시작은 가정생활의 기본인 식탁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의미를 지닌다. 성소에서 시작된 거룩이(1-7장), 제사장을 통해 가정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먹는 것에서부터 거룩함을 훈련해야 하고, 성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실천해야 함을 의미한다. 레위기에 의하면, 먹는 것의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다음으로 레위기 음식법 규정의 동기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식법과 정, 부정법을 지켜야 하는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11:44-45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6)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청중으로 소개하는 신명기의 음식법 규정과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신명기 14:1-3, “너희[이스라엘 백성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를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빼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너희[이스라엘 백성]는 가중한 물건(מְבִרָה)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런 배경에서 드라이버(Driver)는 신명기 14장의 음식법 규정을 “평신도의 거룩”(Holiness of the Laity)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다. W. D. Driver, *Deuteronomy* (Edinburgh: T&T Clark, 1996), 155.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אני קדוש)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תקדשו) 거룩하게 하고(קדשו) 땅에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אני קדוש) 너희도 거룩할지어다(קדשו)(레 11:44-45).

위의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룩(קדוש)은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이 백성들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구원받아 정결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קדשו).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몸을 구별하여 부정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다(תקדשו). 이렇게 하여 레위기는 음식법 규례를 분명히 거룩이라는 문맥에 위치시키고 있다. 레위기는 특히 음식법 준수를 성결법전의 중심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을 닮아감(Imitation of God)이라는 주제와 연결시키고 있다(“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다.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웨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방법은 모든 부정한 요소에서 구별하는 것이다. 음식법 규정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과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음식법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을 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음식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법 규례를 통해서,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정결한 백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sup>27)</sup>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법 규정을 통해서

27) 11:45에서 특별히 애굽에서의 구원의 사건을 언급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여기서 “인도하여 낸”(מִצֵּי־מִצְרַיִם)이라는 표현으로 되새김질을 연상케 하는 단어(מִצְרַיִם)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Kiuchi, *Leviticus*, 203; Milgrom,

거룩하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된다. 그들은 음식법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절제의 훈련을 매일의 일상적인 삶속에서 경험하게 된다.<sup>28)</sup> 이런 맥락에서 밀그롬은 레위기 음식법 규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sup>29)</sup>

유대인들은 허락된 짐승만을 먹어야 하는 규정을 지킴으로 그들의 먹고자 하는 욕구를 훈련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열망하며 살아가게 된다.

요약하면, 레위기의 음식법은 레위기의 다른 율법 규정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sup>30)</sup> 레위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법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성취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거룩의 내용이기도 하다.<sup>31)</sup>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음식법 규정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 받은(정결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된다.<sup>32)</sup> 레위기는 음식

---

*Leviticus 1-16* (New York: Doubleday, 1991), 688. 키우치(Kiuchi)에 의하면, 오경의 P와 H에서 출애굽을 의미하는 문맥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은 유일하게 이 곳 뿐이다. 다른 곳에서는 ‘야차’(כֶּזֶב)의 수동형이 사용되었다(완료형: 레 25:38, 42; 출 29:46; 민 15:41; 분사형: 레 22:33; 출 6:7).

28)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은 제한적이다. 레위기 17장은 소, 양, 염소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먼저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를 먹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레 17:11). 이것은 레위기의 거룩이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29) Jacob Milgrom, “The Biblical Dietary Laws as an Ethical System,” *Interpretation* 17 (1963), 291.

30) Milgrom, “The Biblical Dietary Laws as an Ethical System,” 296. 참조, 전정진,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 유니온 선교회, 2004), 124. 음식법 규정과 거룩과의 관계는 레위기 20:25-26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31) Milgrom, *Leviticus 1-16*, 689.

32) Wenham, “The Theology of Unclean Food,” 10.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생활이 거룩(성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 4. 바리새파 전통의 음식법의 신학과 해석<sup>33)</sup>

고대 유대교(제2성전 유대교)에서 음식법 규정은 안식일법과 함께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그것은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음식법 규정과 안식일 법 준수가 이스라엘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의 표현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음식법 규정은 바리새파에서 특별히 강조되었다.<sup>34)</sup> 바리새파 전통에서는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규정이 문자적으로 지켰을 뿐 아니라(미쉬나 *Hullin* 3:6-7; *Lev Rabba* 13:9-13),<sup>35)</sup> 일부 규정들을 확대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sup>36)</sup>

33) 고대 유대교의 바리새파 전통은 중세와 현대 유대교의 근간을 이룬다. 미쉬나(Mishnah)와 미드라쉬(Midrash)는 비록 AD 2세기 이후에 편찬이 되었지만, 고대 유대교의 바리새파 전통을 반영한다. 필자는 바리새파 전통의 음식법 규정을 다룰 때 미쉬나를 중심으로 하여 일부 유대교 미드라쉬의 문헌을 살펴볼 것이다.

34) Neusner, *The Rabbinic Tradition about the Pharisees Before 70*, 3 (Leiden: Brill, 1971), 318; Dunn, *Jesus, Paul and the Law* (London: SPCK, 1990), 65. 누스너(Neusner)에 의하면, 229가지 이상의 음식법과 관련된 랍비 전통의 율법이 바리새파의 중심인 물로 알려진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바리새파 전통에서의 음식법 규정이 고대 유대교(제2성전 유대교)에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의미하며 음식법 규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바리새파는 식탁의 교제를 위한 모임으로 간주될 정도였다. 고대 유대교 문헌에 의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하베림(חבירים)으로 동일시되기도 한다. 하베림은 “정결한 상태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바리새인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바리새파와 하베림은 완전히 동일시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베림이 바리새파의 대다수를 차지했을 것이다.

35) Sanders, *Jewish Law from Jesus to the Mishnah*, 200.

36) 미쉬나 *Hullin*은 바리새파 전통에서 추가한 수많은 세부적인 음식법 규례들을 소개한다. Neusner, *The Rabbinic Tradition about the Pharisees Before 70*, 3 (Leiden: Brill, 1971), 318; Dunn, *Jesus, Paul and the Law* (London: SPCK, 1990), 65.

## 4.1. 바리새파의 신학적 이상

바리새파에서의 음식법 규정에 대한 해석은 바리새파의 신학적인 이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진행된다. 바리새파의 신학적인 이상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 야웨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것이다. 바리새파에서는 특히 분리로서의 거룩의 의미가 강조되었다.<sup>37)</sup> 그래서 바리새파 문헌에서 거룩하다는 용어(קָדַשׁ, 카도쉬)는 자주 ‘분리되었다’는 의미의 단어(פְּרִיטָה, 파루섬)와 동일시된다.<sup>38)</sup> 따라서 레위기 19:2(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도 “너희는 내가 분리됨같이 분리하라”로 이해했다(*Sifra Lev 19:2; Sifra Lev 11:44*).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든 부정한 요소에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은 모든 부정한 요소(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에서 분리되어야 이루어진다고 믿었다.<sup>39)</sup> 이것은 자연스럽게 민족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결법과 음식법 강조로 나타났다.<sup>40)</sup>

거룩에 대한 강조와 함께 바리새파의 신학적인 이상은 제사장 나라

37) 분리에 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심은 ‘분리된 사람들’(separated ones)이라는 의미를 지닌 ‘바리새’라는 명칭에 암시되어 있다. ‘바리새’라는 종파의 명칭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동체 이상과 정체성을 암시한다. 그렇지만, 바리새파라는 명칭은 외부에서 부르는 명칭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와의 논쟁할 때의 경우 외에는 자신들의 종파를 가리키는 용어로 “바리새”(פְּרִיטָה)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는 하카밈(현자, Sages), 쇼페림(서기관들), 하베림(연합한 자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llis Rivkin, *A Hidden Revolution* (Nashville: Abingdon, 1978), 177; Emil Schürer,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in the Age of Jesus Christ: 175 BC-135 AD*, 2 (Edinburgh: T&T Clark, 1973), 398-400.

38) Jeremias, *Jerusalem in the Time of Jesus*, 249; Baeck, *The Pharisees and Other Essays*, 36f.

39) Baeck, *The Pharisees and Other Essays*, 3-50.

40) 정결을 강조하는 경향은 제2성전 유대교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쿰란 예세네 종파나 사두개파에서는 바리새파처럼 정결법과 관련하여 많은 규정들을 세부화하거나 정결법과 음식법에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의 실현이었다.<sup>41)</sup> 그리고 그 방법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1) 하나는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로들의 유전이 포함되었고 그 중에는 음식법과 정결법의 많은 규정들이 들어 있었다.<sup>42)</sup> (2) 또 하나는 성전에서의 거룩을 일상생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제사장의 거룩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sup>43)</sup> 이를 통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주축으로 하는 제사장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한 것이다.

#### 4.2. 바리새파 전통의 음식법(식탁의 교제)의 해석과 적용

바리새파의 거룩에 대한 이해와 제사장 나라 건설이라는 이상은

- 
- 41) Neusner, *From Politics to Piety*, 146; Dunn, *The Partings of the Ways*, 41.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성경의 전통을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출 19:5-6; 겔 40-48장)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믿었다.
- 42) 바리새파 전통에서의 음식법 규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구약의 음식법 규정을 더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규정뿐만 아니라 많은 장로들의 유전을 포함시켰다(미쉬나 *Hullin* 3.6). 이 과정에서 음식법 규정은 특별한 중요성을 띠게 되었고, 음식법과 연관된 수많은 구전전승들이 형성되게 되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의 식사 전 손을 씻는 의식과 관계된 논쟁은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한다.
- 43) Dunn, *The Partings of the Ways*, 41; Wright,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195; Alon, *Jews, Judaism and the Classical World*, 219. 샌더스(E.P. Sanders)는 근래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제사장인 것처럼 행동하고, 제사장의 정결법 규정을 자신들에게 확장시켰다는 누스너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했다. 샌더스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일상적인 음식이 아닌 거룩한 음식으로 알려진 두 번째 십일조(second tithe), 희생 제물(sacrifice), 소제(heave offering)에 관한 정결법에 관심을 기울였다. Sanders, *Jewish Law from Jesus to the Mishnah*. 그렇지만, 샌더스의 의견은 라이트(Wright), 하링톤(Harrington)과 같은 학자들이 반박했다. Wright,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187; Hannah K. Harrington, "Did the Pharisees Eat Ordinary Food in a State of Ritual Purity," *JSJ* 26 (1995), 42-43.

레위기의 음식법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4.2.1. 분리로서의 기록

바리새파 사람들은 레위기 11장에서 열거되는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은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처럼,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 정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부정한 유대인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sup>44)</sup> 이러한 해석적인 경향은 미쉬나와 유대인 미드라쉬(*Lev Rabbah* 13:9-13)에 반영되어 있다. *Leviticus Rabbah*에 따르면,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 나라를 의미한다(악대=바벨론; 사반=메데; 토끼=헬라; 돼지=에돔, 로마).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동물들을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규정의 의미를 유대인 공동체에도 적용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만을 진정한 이스라엘로 간주했다.<sup>45)</sup>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암하아레츠), 세리와 죄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부정한 존재들이다. 따라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부류들과 철저한 분리를 시도하였고, 식탁의 교제도 거부하게 되었다(미쉬나 *Demai* 2:3, 6:6).<sup>46)</sup>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음식법은 바리새

---

44) Neusner, *Juda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2004). 79.

45) Schürer,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in the Age of Jesus Christ: 175 BC-135 AD*, 400.

46) Marcus Borg, *Conflict, Holiness & Politics in the Teaching of Jesus*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1984), 81; Sanders, *Jewish Law from Jesus to the Mishnah*, 250. 미쉬나 *Demai* 2:3에 의하면, 하베림(바리새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암하아레츠”에게 과일을 팔거나 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거

과를 유대의 다른 종파와 구별 짓는 경계의 표시이며, 바리새인이라는 정체성의 표시로 이해되었다.<sup>47)</sup>

#### 4.2.2. 제사장 나라의 건설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상은 모든 유대인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거룩을 지키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sup>48)</sup> 즉, 제사장의 거룩을 성전이나 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sup>49)</sup> 이를 위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의 음식법과 관련된 규정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킨다.

-가정의 식탁을 성전의 제단으로, 일상의 음식을 제단에 놓인 희생 제물과 같은 것으로 간주했다. 식탁에 올라오는 동물은 흠이 없어야 했는데(미쉬나 *Hullin* 1:1), 이것은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레위기의 규정을 가정의 음식에 적용한 것이다.<sup>50)</sup>

-구약의 음식법 규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예를 들면, 식탁에 사용될 짐승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인데(미쉬나 *Hullin* 1:2-4),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정의 식탁에 적용한 것이다.

---

나, 그들을 손님으로 초대해서도 안 된다.

47) James Dunn, *Jesus, Table-Fellowship and the Qumran*, *Jesus and the Dead Sea Scrolls*, James Charlesworth, ed. (New York: Doubleday, 1993), 259-260; Neuser, *From politics to Piety*, 89.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서 음식법과 정결법 규정을 지키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이었다. Neuser, *The Idea of Purity in Ancient Judaism* (Leiden: Brill, 1973), 27. 바리새파 이상을 따르는 공동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자신들이 해석한 방식으로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었다.

48) Neuser, *From politics to Piety*, 88.

49) Neuser, *From politics to Piety*, 88.

50) Coh-Sherbok, *The Jewish Faith*, 213.

-가정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제단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로 간주했다(미쉬나 *Aboth* 1:12).<sup>51)</sup> 따라서 음식을 먹는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와 같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의식으로 이해된다(미쉬나 *Hagigab* 2:5; 미쉬나 *Berakoth* 8:1ff).<sup>52)</sup>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서 정결의식을 행함같이 거룩한 제사의식에 참여할 준비를 행하는 것으로 여겼다. 때로 식사자리에 참여하기 전에 목욕을 하기도 했는데(미쉬나 *Hagigab* 2:6), 이것은 제사장들이 희생 제의를 집행하는 동안 물로 몸을 씻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식사 전과 후에 이루어지는 축사는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는 기도로 간주되었다(미쉬나 *Berakoth* 1:3-4; 미쉬나 *Berakoth* 7:1ff).<sup>53)</sup>

51) 미쉬나 *Aboth* 1:12: “힐렐과 사마이는 그들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힐렐이 말하기를, 아론의 제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살롬을 사랑하고 살롬을 추구하라.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율법으로 가까이 인도하라.” 여기에서 힐렐은 바리새인들을 아론의 제자들 즉, 제사장들로 간주한다.

52) 미쉬나 *Hagigab* 2:5: “[음식을 먹기 위해서], 즉 성별되지 않은 음식이나, [제 2의] 십일조, 곡물제사를 먹는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한다. 그리고 성물의 경우에는 완전히 몸을 물에 담구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의 손이 부정하면, 그의 온 몸이 부정하다.”

53) 미쉬나 *Berakoth* 1:3-4: “사마이 학파는 말하기를, 저녁 식사에서 모든 사람은 쉘마를 낭독해야 한다. 그리고 아침에는 서서 쉘마를 낭독해야 한다...저녁에는 두 번의 축도가 [쉘마]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고, 저녁[식사]에도 두 번의 축도가 [식사] 전과 후에 각각 이루어 져야 한다.”

미쉬나 *Berakoth* 7:1ff: “만약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할 때에, 그들은 먼저 축사 [Common Grace]를 해야 한다...어떻게 축사를 할 것인가? 세 사람이 참석하면, 한 사람이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송축합니다’라고 한다.”

그렇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식사 전의 축도는 성전 제의에서 행해진 것과 동일한 의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않았다. 누스너에 의하면(*From Politics to Piety*, 88), 바리새파의 식탁의 교제가 비록 성전의 의식을 반영하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의식 가운데 행해지기는 했지만, 성전 제의에서의 의식과는 구별해서 생각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레위기의 음식법과 관련된 규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는 보여준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음식법 규정을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는 방편으로 생각했으며, 제사장 나라 건설이라는 신학적인 이상을 이루기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음식법 규정의 원래 의미와는 거리가 있는 무리한 해석을 시도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거룩에 대한 이해는 음식법 규정에 대한 강조로 표현되었고, 음식법 규정에 대한 철저한 준수는 거룩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간주되었다. 더 나아가 바리새파에서는 음식법 규정이 제사장 나라 건설이라는 이상을 이루기 위한 주된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제사장의 거룩을 실천하도록 제사장 규정을 식탁의 예법에 재해석하여 적용시켰다. 이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식법 규정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건설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sup>54)</sup>

##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 음식법 규정에 나타난 신학적 의미와 그의 해석학적 관점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레위기의 음식법 규정 배후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레위기의 음식법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음식법 규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정결한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한다. 이것은

---

54)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그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음식법 규정과 관계된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유대교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음에 분명하다. James Dunn, "Jesus, Table-Fellowship and the Qumran," 260.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레위기의 음식법 규정은 거룩의 문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음식법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고 만들어 가는 중요한 방편임을 의미한다. 레위기의 거룩은 먹을거리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거룩의 훈련은 성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실천되어야함을 보여준다.

바리새파 전통에서의 음식법 해석은 기본적으로 레위기의 음식법 규정의 신학적 의미를 반영한다. 바리새파 전통에서는 음식법 규정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의식을 심어주고 거룩함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분리로서의 거룩’의 의미를 강조하여 음식 규례에 지나친 배타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해석적 경향은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했던 고대 유대교라는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리새파 전통에서의 음식법 규정은 바리새파의 신학적인 이상(제사장 나라 건설=모든 유대인의 제사장화)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음식법 규정은 재해석되고 보다 세부적으로 발전되었다.

레위기와 바리새파 유대교 전통은 먹을거리의 문제를 거룩이라는 문맥에서 이해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 사실은 우리가 식탁의 문제를 거룩의 관점에서 돌아보게 한다. 예수님께서 정, 부정의 구분을 폐하셨기 때문에(막 7:15-16),<sup>55)</sup> 우리는 레위기의 음식법을 더는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이것이 레위기의 음식법에 담겨진 기본적인 의미(정결함과 거룩)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먹는 것에 대한 훈련(절제)이 경건(거룩)을 이루어 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55) 이것은 기본적으로 음식법 배후에 있는 가치 체계(정결한 동물=유대인, 부정한 동물=이방인)가 더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행 10장). 복음서의 음식법 논쟁에 관하여는 필자의 글 “복음서에 나타난 음식법 논쟁에 관한 연구: 마태(15장)와 마가(7장)를 중심으로,” 「신약논단」 12 (2005), 591-622를 참조하라.

**<주요어>**

음식법, 정, 부정, 거룩, 메리 더글라스, 하나님을 닮아감, 바리새파 전통, 제사장 나라

**<Key Words>**

Dietary laws, Purity, Holiness, Mary Douglas, Imitation of God, Pharisaic tradition, Priestly nation

### 참고문헌

- 김덕중, “구약성서의 음식법 연구: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중심으로,” 「국제신학」 7 (2005), 324-349.
- 김덕중, “복음서에 나타난 음식법 논쟁에 관한 연구: 마태(15장)와 마가(7장)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12 (2005), 591-622.
- 전정진,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 유니온 선교회, 2004.
- 최명덕, 『유대인 이야기』, 서울: 두란노, 1998.
- Alon, G., *Jews, Judaism and the Classical World*, Jerusalem: Magness Press, 1977.
- Baeck, L., *The Pharisees and Other Essays*, New York: Schocken, 1947.
- Bailey, Loyd R., *Leviticus*, Atlanta: John Knox Press, 1987.
- Blenkinsopp, Joseph, *Wisdom and Law in the OT*, Oxford: Oxford Univ. Press, 1983.
- Borg, Marcus, *Conflict, Holiness & Politics in the Teaching of Jesus*,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1984.
-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I. Abraham., trans., Jerusalem: Magnes Press, 1967.
- Cohn-Sherbok, Dan, *The Jewish Faith*, London: SPCK, 1993.
- Davies, W. D. and Allison, Dale. C.,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1, 2, Edinburgh: T&T Clark, 1988.
- Douglas, Mary, *Implicit Meaning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5.
- Douglas, Mary, “The Forbidden Animals in Leviticus,” *JSOT* 59 (1993), 3-23.
- Driver, W.D., *Deuteronomy*, Edinburgh: T&T Clark, 1996.
- Dunn, James, “Jesus, Table-Fellowship, and Qumran,” James Charlesworth, ed., *Jesus and the Dead Sea Scrolls*, New York: Doubleday, 1993, 254-272.
- Dunn, James, *Jesus, Paul and the Law*, London: SPCK, 1990.
- Dunn, James, *The Partings of the Ways*, London: SCM Press, 1991.
- Harrington, Hannah K., “Did the Pharisees Eat Ordinary Food in a State of Ritual Purity,”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26 (1995), 42-54.
- Hartley, John, *Leviticus*,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2.

- Hertz, J. H., ed., *The Pentateuch and Hafttorah*, London: The Soncino Press, 1947.
- Houston, Walter, *Purity and Monotheism*,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Jenson, Philip Peter, *Graded Holiness: A Key to the Priestly Conception of the Worl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Jeremias, Joachim, *Jerusalem in the Time of Jesus*, London: SCM Press, 1971.
- Kiuchi, Nobuyoshi, *Leviticus*, Nottingham: Apollos, 2007.
- Knohl, Israel, *The Sanctuary of Silenc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Levine, Baruch, *Leviticus*, JPS Torah Commentary Series,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Lindars, B., "All Foods Clean: Thoughts on Jesus and the Law," *Law and Religion: Essays on the Place of the Law in Israel and Early Christi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61-71.
- Maccoby, Hyam, "Holiness and Purity," John F. A. Sawyer, ed., *Reading Leviticu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Milgrom, Jacob, "The Biblical Dietary Laws as an Ethical System," *Interpretation* 17 (1963), 288-301.
- Milgrom, Jacob, "The Changing Concept of Holiness in the Pentateuchal Code," John F. A. Sawyer, ed., *Reading Leviticu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Milgrom, Jacob, *Leviticus 1-16*, New York: Doubleday, 1991.
- Neusner, Jacob, *From Politics to Piety: The Emergence of Pharisaic Judais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 Neusner, Jacob, *Juda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Peabody/Massachusetts: Hendrickson, 2004.
- Neusner, Jacob, *Making God's Word Work: A Guide to Mishnah*, New York: Continuum, 2004.
- Neusner, Jacob, *The Idea of Purity in Ancient Judaism*, Leiden: Brill, 1973.
- Neusner, Jacob, *The Rabbinic Tradition about the Pharisees Before 70*, 3, Leiden: Brill, 1971.

- Noth, Martin, *Leviticus*, London: SCM Press, 1965.
- Rivkin, Ellis, *A Hidden Revolution*, Nashville: Abingdon, 1978.
- Saldarini, Anthony J., *Matthew's Christian-Jewish Community*, Chicago: Univ. of Chicago, 1994.
- Sanders, E. P., *Jewish Law from Jesus to the Mishnah*, London: SCM Press, 1990.
- Schürer, Emil,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in the Age of Jesus Christ (175 BC-135 AD)*, Edinburgh: T&T Clark, 1973.
- Wang, Tai-Il, "Leviticus 11-15: A Form-Critical Study," Ph. D. Diss., Claremont Graduate School, 1991.
- Wells, Jo Baily, *God's Holy Peop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Wenham, Gordon J., "The Theology of Unclean Food," *Evangelical Quarterly* 53/1 (1981), 6-15.
- Wenham, Gordon J., *The Book of Leviticus*, Grand Rapids, Michigan: Erdmans, 1985.
- Wright, N.T.,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초록>

## 음식 규례와 거룩

-레위기 음식법의 신학과 해석-

김덕중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교수, 구약학)

현대 유대인들은 까다로운 음식법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대인들의 음식법 규례는 레위기의 음식법 규례와 고대 유대교 (특히 바리새파 전통)의 음식법 규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유대교의 음식법의 기원을 이루고 있는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규정의 신학적 의미와 해석, 고대 유대교를 대표하는 바리새파 전통의 음식법 규례의 해석의 문제를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레위기 음식법 규례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은 해석학적인 제안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메리 더글라스는 레위기의 신학과 세계관이 라는 관점에서 음식법 규례의 일관성 있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더글라스에 의하면, 음식법 규례의 배후에는 인간사회의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가치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더글라스의 견해를 해석학적인 출발점으로 하여, 레위기 11장 텍스트와 그 전후 문맥(레 10-15장) 속에서 음식법 규정이 차지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레위기는 음식법 규례를 거룩의 한 내용으로 소개하면서,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거룩의 문제로 제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부터 거룩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법 규례의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45-46절은 음식법 규례를 하나님을 닮아감이라는 레 위기의 신학과 연결시킨다. 레위기의 음식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한 방안이다. 바리새파 전통에서 음식법은 거

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주제와 제사장 나라 건설이라는 신학적인 이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이 처해 있었던 역사적인 환경과 종파의 신학적인 이상에 맞추어 음식법 규정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레위기 11장의 해석과 바리새파 전통의 음식법 규례의 해석은 고대 이스라엘과 유대교에서 음식법 규정이 거룩이라는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진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식탁의 문제를 단순한 먹을거리 문제를 넘어 경건을 훈련하는 도구로 이해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Abstract>

## Dietary Laws and Holiness:

Theology and Interpretation of the Dietary Laws in Leviticus

Prof. Duk-Joong Kim

(Ezra Bible Institute for Graduate Studies)

Modern Jews are famous for keeping meticulous dietary regulations. Jewish dietary habits are rooted in Leviticus 11 and the dietary tradition in ancient Judaism.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theological meanings and the interpretations of the dietary laws in Leviticus 11, and also the Pharisaic hermeneutical tradition in relation to dietary regulations.

There have been various interpretative efforts with regard to the underlying motive of distinguishing clean and unclean

animals in Leviticus 11. Especially Mary Douglas has provided an overarching and coherent idea lying behind the dietary laws in Leviticus 11 in the light of Levitical theology and world views. According to Douglas, a value system which reflects a pattern of human behaviour lies behind the dietary regulations. Making Douglas's view a hermeneutical starting point, this paper tries to determine the theological meanings of the dietary regulations in Leviticus 11 from the literary and theological context in which Leviticus 11 is situated. It is to be noticed that Leviticus deals with the dietary laws in the context of holiness, which is the key theme of Leviticus. The dining table at home are to be the place where Israelites should practice holiness. In addition to this, Lev 11:45-46 provides an important theological motive for keeping the dietary regulations, which is "the imitation of God". Thus, the dietary regulations in Leviticus is defined as a means to become like Yahweh, the holy God of Israel. The Pharisaic tradition places the dietary regulations and purity laws in a significant position. The Pharisees interpreted the dietary regulation in relation to holiness and the motive of 'the imitation of God'. A step further, they made use of the dietary laws to achieve their sectarian goal, which is the establishment of a priestly nation in the land.

The study of Leviticus 11 in its literary and theological context and the Pharisaic interpretation of the dietary laws lead us a necessity that the dietary laws is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holiness. This understanding provides us an impetus to reconsider food habits as a means to practise piety.